

[새봄 기층 탐방]

# 오직 뽕 차는 자식을 위해 '시즌' 달린다



대청 경리와 함께 음식메뉴를 토론했던 김춘연씨(왼쪽 사람)

해외에 있던 친구가 설 쇠려 연길에 왔다고 위챗으로 알린다. 그래서 단위에서도 가깝고 먹을거리도 많은 소장거리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약속 시간을 반시간 앞두고 도보로 소장거리로 향했다.

1980년대초까지 소장거리가 있었던 연길시 공원가 소장거리는 예로부터 유명한 먹자동네였다. 소장거리는 소만 거래되는 시장이 아닌 각종 토산품과 음식, 육류에 복잡, 오금잡화까지 팔렸던 날직한 재래시장이었다고 한다. 지금의 '369' 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규모였다.

이곳에 음식점이 한집, 두집 생기고 장군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술잔을 기울이면서 구수한 흥정이야기나 다른 지역 시장이야기로 술안주를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음식점들이 줄줄이 들어서 먹자거리로 변해버렸다.

도시건설 수요와 교통 등 여러 요소로 소장을 북쪽 교외로 옮겼지만 그 사이 많은 이야기가 생겼을 것이다. 1990년대 김정권, 김철부가 창작하고 리동훈, 오선옥이 출연한 소품 <공원 우장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지난해 연길시에서는 소장거리와 리화로 사거리 북쪽에 커다란 황소동상을 설립하고 주변에 안대관, 화단과 조형물들을 가설하여 소장거리의 분위기를 살렸다.

소장거리에 들어서자 '장국집'을 비롯하여 '초두부', '세치네탕', '불고기', '운면', '팽면' 등 각종 음식점 간판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런데 대도시 상업가나 연변대학 맞은편 왕흥벽에서나 볼 수 있는 손 영어간판이 눈에 보이진 않나? 사계절이라는 영어단어 '시즌'(season)이 걸려있는 곳은 바로 황소동상 서북쪽이다.

영업집은 영업집이겠는데 하고 생각하였지만 무슨 영업을 하는지 무척 궁금하다. 마침 맥주 배달차에서 맥주를 부리워 2층으로 올리는 배달직원이 있어 술집이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 은방울 굴리는 듯한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문앞에 명하고 서있으니 길이 막혀 올라가지 못하는 손님으로 오해한 모양이다.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으니 일단 올라가 보기로 하였다. 700여평방미터의 2층은 오르건에는 독방들이고 왼쪽은 한메터 높이의 간이벽으로 요리조리 칸을 막은 대청이었다. 7개의 독방은 30, 40평방미터 크기의 면적에 노래기계까지 배비하였는데 내부 장식은 하는 중이라 3월 쯤이면 개업하게 될 것이며 대청은 14개의 크고 작은 탁상으로 설계되었다고 소개하는 여성은 조양천진 태동 태생인 김춘연(39세) 씨였다. 대청은 알맞춤한 설계와 조명등으로 쾌적하면서도 은은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가끔 찾아오는 축구동아리들의 모임 한 장면

메뉴를 들여다보니 볶음류, 졸임류, 구이류, 무침류에 주식까지 구전하였다. 그럴듯한 장소라 열린 친구에게 위챗 위치를 발송했다.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녀에게 "왜 영어간판만 걸었는가?" 조심스레 물었다. "뭐 특별한 리유는 없습니다. 간혹 당구실인가 혹은 실내 골프장인가 하고 물어오는 손님들도 있어서 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할 때 뽕 차는 우리 아이들이 좀 하주동 변함없이 꾸준히 하라고 '시즌'(season)으로 정하였습니다. 기실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사계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한다.

그녀의 12살 나이는 아들은 산동로능 축구학교 U12 팀에서 뽕 차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축구에 남다른 애착이 있는 남편은 산동성 유방시에 가서 아들의 뽕바라지를 하고 있다. 그녀는 사촌오빠와 함께 이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데 사촌오빠네 두 아들도 현재 공원소학교에서 뽕 차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시즌'(season)은 결국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가게라고 호호 웃는다.

연길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소장거리의 음식점들도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시즌'(season)은 원래 축구를 배우는 학생, 학부모들과 여러 축구동아리가 주요 고객군이었는데 개업 3개월이 되자 많은 단골이 생겼으며 외지 관광객들도 틱톡이나 위챗을 보고 단체로 찾아올 때가 많다고 한다.

예로부터 유명한 먹자거리인 손 영어간판이 들어서는 것은 그 어떤 전통 음식이나 문화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문화를 선호하는 요즘 세대의 수요가 아닐까. 하얀 축구복을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달갑게 사계절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가늠된다. 오늘날 연변의 조선족 축구선수들이 중국 축구무대를 주름잡을 수 있는 것 또한 김춘연씨와 같은 수많은 학부모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겠는가?

/ 김태국기자



## 연변가무단 창작 음악극

### 《희망 사회구역》 성공적 첫 공연



지난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으며 연변가무단에서 기획한 창작 음악극 《희망 사회구역》이 연변가무단 극장에서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펼치며 현장을 찾은 300여명의 관객들에게 정품 문예 향연을 선사했다.

《희망 사회구역》은 희망과 감동으로 가득한 7막 음악극으로 희극, 음악, 무용의 완벽한 조화로 몰입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음악극을 각을 담은 가사와 흥겨운 멜로디로 극에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따뜻함', '열정', '급변', '고난', '다사', '조화', '행복' 등 극적인 전개를 통해 조국의 동북 변강에 위치한 한보통 주택단지내 평범한 사람들의 20세기 90년대 이래 30년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이들 중에는 불고기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는가 하면 주택대출을 갚느라 바쁘게 보내는 회사원이 있으며 아르바이트로 바쁜 취업준비생도 있다. 또 쓰레기를 쫓는 독거로인에 사회구역판공실 주인과 경비아저씨 등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서로를 돌보고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으로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각자의 꿈을 품은 채 도전하고 삶의 굴곡 속에서도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웃고 울며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이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더불어 고향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한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생생한 연기로 열연을 펼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많은 관객들은 감동적인 스토리에 몰입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으며 객석 곳곳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관객들은 너도나도 '희망 사회구역'이 바로 우리가 사는 동네이며 사회구역내 주민들은 서로 인심이 모이고 상호 의지하면서 동고동락하는 공동체를 형성한, 그야말로 우리 생활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음악극 감독을 맡은 마학봉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아 이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작품 속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현실적이고도 생생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관객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료해 따르면, 연변가무단의 연기자들은 이 작품을 좀더 깊이있게 다듬어 더욱 완벽하게 연출함으로써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단결 진보의 승격력을 구축하는 데 문화 예술의 힘을 이바지하려 한다.

/ 김가혜기자

/ 사진제공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



## 연변 커피문화의 새로운 혁신... '커피 + 원소' 체험 활동

커피와 전통미식인 원소가 만나면 어떤 맛을 선사할까?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커피문화 교류발전협회에서 주최한 정월대보름 '커피 + 원소' 체험 행사가 연변로동자 문화예술중심에서 펼쳐졌다.

연변조선족자치주커피문화교류발전 협회가 이번 활동에서 선보인 커피는 구수한 커피향이 두드러진 커피농축액에 탱탱하게 잘 삶아진 팥앙금

원소를 넣어 만든 신선한 조합의 커피였다.

꽃등축제 현장을 찾았던 시민들은 새로운 조합의 커피에 관심을 보이며 너도나도 커피체험에 나섰다.

연길시민 리모는 "팽소 커피를 즐겨 마시는 나로 봐서도 커피에 원소를 결합시킨 것은 정말 기발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면서 "커피의 씹싸름한 맛과 원소의 달콤한 맛이 의외로 조화롭게

잘 어울린다. 또 쫄깃한 원소를 씹을 때마다 커피맛이 깊게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커피를 체험해본 다른 시민들도 "여직껏 정월대보름에 먹어본 원소중에 가장 새롭다.", "신선한 체험이었다." 등의 평가를 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커피문화교류발전 협회 부회장 오림결은 "이번 활동은 정월대보름이라는 특별한 명절을 맞

으며 연변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새로운 창의를 더하고 연변음식의 발전과 혁신에 힘을 보태려는 데 취지를 두었다."면서 "향후에도 커피 + 전통 문화, 커피 + 특산물 등 형식으로 커피제품의 개발과 혁신에 공을 들이고 커피체험, 커피문화교류 등 활동을 광범하게 조직해 연변의 커피문화를 더 널리 선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종합

科学饮食 · 规律作息

健康未来

— 文明健康有你有我 —